

이스라엘 한인 목회자들, “분노가 더 큰 분노 불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인해 가자지구 일대가 초토화됐다. ©BBC 뉴스 유튜브 캡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역 중인 한인 목회자들은 어린이와 여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해한 하마스의 충격적인 테러 행태를 접하면서 “전쟁을 넘어선 학살”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쟁이 속히 종식될 것을 염원하며, 이스라엘군이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대피할 길을 열어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호소했다.

2012년부터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현재 예루살렘살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성훈 목사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러 차례 충돌을 목격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하마스의 행위) 학살이 맞다. 군인 대 군인이 아닌 아무 관계가 없는 여성, 노인, 심지어 영유아까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불러온

다.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와 원만하게 협상해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 발생했다.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아닌 하마스와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선교협회(이하 이팔선교협) 회장 감요한 목사는 “그간 하마스의 침공이나 도발로 발생한 이스라엘 측 사상자는 수십명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대대적인 테러리스트들의 지상 침투로 가자지역 주변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다. 이스라엘 국민이 느낀 정서적 충격은 9.11 테러,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수준이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분노했고, 전쟁이라고 선언했다”고 했다.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대대적인 공습과 가자지구 완전 봉쇄, 지상군 투입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도 상존하는 것에 대해 “전쟁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발발해선 안 된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아닌 ‘테러단체’ 하마스와의 충돌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을 따로 봐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성급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하마스 전멸’에 나선 이스라엘 군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도 요청했다. 그는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이전에 가자지구에는 민간인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집트로 피할 기회와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스라엘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무리한 사법개혁으로 심각한 국론 분열에 빠져 있던 터였다. 감 목사는 “내전까지 거론되던 일들이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잠잠해졌고, 정부를 부정했던 예비군들이 하나씩 단결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과 야당이 전쟁을 위해 합의된 정부 구성에 동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 국민에게 하나의 목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 테러리스트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더불어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은 하나 되어 극복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경호 기자**

“미디어와의 전쟁, 아이 마음 지키도록 하는 것이 관건”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앱을 설치하고 핸드폰을 빼앗아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음란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품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 이것만 알아도 반은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길교회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소예배실에서 다음세대의 위기, 미디어와의 전쟁, 미국의 성교육 실태와 대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를 인도한 이진아 대표(남가주 다음세대지킴이, 전 베델교회 사역자)는 “아이들이 한 달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미디어의 폐해로부터 아이들의 생각과 성품을 지켜주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음란물을 접했고 이는 중학생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

다”라면서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한다.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된 세대이다. 이들의 특징은 핸드폰이 몸의 한 부분이 되고, SNS를 통해 자기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부모님보다 구글 검색을 더 신뢰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들의 문제점은 관계성에 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남의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한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없고 관계 부적응의 증상이 있다”라면서 “이들은 핸드폰을 빼앗으면 어쩔 줄 몰라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건강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를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감정 조절을 힘들어하고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한길교회가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소예배실에서 이진아 대표(남가주다음세대지킴이, 전 베델교회 사역자)를 초청해 미국의 성교육 실태와 대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마음을 잡으려면 그들의 눈과 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컨트롤 잘해야 한다. 아이들의 일상에 스며든 성 상품화 게임들이 많다. 강력한 미디어를 접할수록 아이들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 생기게 된다. 강한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웬만한 반응에는 반응하지 않게 된다. 그런 아이들은 좀비처럼 되기 쉽고 평상시에는 눈이 풀려져있다”고 했다. **→ 4면으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3 *Miracle Blessing*
미라클 블레싱
 주님의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21일 미라클 블레싱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세움받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정	첫째 주간 10/29-11/4 월 - 목: 김동기 목사 (부흥회) 금 - 토: 신승훈 담임목사	셋째 주간 11/12-11/18 월-목: 강신정 목사 (부흥회) 금-토: 신승훈 담임목사
	둘째 주간 11/5-11/11 월: 최형규 목사 화: 남상권 목사 수: 이나토미 목사 목: 최형규 목사 금-토: 신승훈 담임목사	찬양 인도 11/3, 8, 15 이천 목사

강 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김동기 목사 (부천광명교회)	 강신정 목사 (논산한빛교회)	 최형규 목사 (생수의강신교회)	 남상권 목사 (담기주어노인교회)	 이나토미 목사 (가스펠실로암교회)
--	---	---	--	---	---

일시: 10/29(주일) - 11/18(토) 7:30pm
주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문의: 교회 행정실 (213) 749-4500

‘사랑과 나눔의 실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신청 접수



오픈청지기재단이 10/16~11/22까지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간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오는 16일부터 2023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들의 프로젝트 또는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서는 16일부터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www.openstewardship.com)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11월22일이다.

올해는 지난 9월 오픈한 오픈뱅크 스프링 마운틴 지점이 위치한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의 신청도 받는다. 이로써 오픈청지기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그리고 네바다 주까지 3개 주에 걸쳐 섬김을 실천하게 된다.

올해는 신청서 및 신청 접수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우선 신청서는 신청단체들을 위해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정리했고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접수의 경우 기존에는 우편 접수만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를 업로드 하는 온라인 접수와 이메일 첨부파일을 이용한 접수도 함께 받게 된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 등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내년 2월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류 심사에서는 재단 측이 요구하는 서류가 정확히 제출이 되는지를 우선 검사하게 되며, 이어 현장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커뮤니티와 연관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 지를 체크한다. 이후 더 필요한 점이 있는 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지 여부를 재단에서 직접 체크를 하게 된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은 “지난 2011년 오픈뱅크가 오픈청지기재단을 설립하고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

해 왔다. 올해도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커뮤니티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게 된다.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힘든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커뮤니티를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건네는 작은 손길이 따뜻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의 도은석 이사장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면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비영리단체들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비영리단체들의 프로그램들이 한층 발전하고 많은 나눔이 한인커뮤니티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 2011년 10월 사회환원과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오픈청지기재단에서 만든 지원금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주 한인사회 및 주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들의 현재 활동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민선 기자 문의: 213-593-4885

E-Mail: jehwan@openstewardship.com

미드웨스턴 컨퍼런스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미드웨스턴 온라인 컨퍼런스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료 화면

최설화 대표 (동서울대학교 겸임교수, 배우) 초청, 응용 연극 다뤄

미드웨스턴 한국부에서는 최설화 대표(동서울대학교 겸임교수, 배우, 프로젝트 타브(TAV) 대표,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일곱집매관장)를 초청해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최설화 대표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돌봄을 받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을 해왔다. 이러한 연극들은 그녀가 공부한 응용 연극(Applied Theatre)을 통

해서 구체화된 것이라 설명했다. 응용연극이란 특정 공동체의 이슈를 그 특성에 맞게 다루는 연극 기법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주제에 대한 연극을 준비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담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가진 뒤, 공동체와의 소통과 자료수집을 통해 안전하게 극화하는 것이다. 이후 재창작 과정, 실제 공연, 그리고 현장에서 관객과의 대화 과정을 통한 피드백 등의 순환을 반복하며 작품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는 형태이다.

최 대표는 응용 연극 기법의 다양한 사례 중 ‘우간다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우간다의 한 마을을 선정해서, 이 곳 어린이들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과 마을 리더 및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

4주간의 프로젝트였다.

대상 마을에 만연한 문제 상황에 대한 지적이나 정당 제시 대신, 연출된 연극의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참여하여 토론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고민할 수 있는 힘(주체성)을 길러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한, 연극에 대한 토론으로 인해 변화된 아이들의 사고를 연극에 반영하고, 이를 재구성한 연극을 전체 마을 주민 앞에서 공연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문제를 공감하고 발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즉, 사전에 철저하게 연구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소통을 가짐으로써, 대상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최 대표가 응용연극을 통해 목적하는 바이다. 문화라

는 코드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위와 같은 실제적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복음의 전달이 없어도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최 대표는 강조했다.

최 대표는 문화 예술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에 있어 ‘안전성’, ‘주체성’, ‘예술성’이라는 극단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예술의 코드로 대상의 이야기를 풀어나감에 있어 공연자와 참여자 모두를 보호하면서도 창의적인 활동과 소통을 계속해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복음 전도의 문맥으로 치환하면, 교회들의 다양하고 고유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각자가 가진 강점을 심분 활용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과의 소통의 채널을 개척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LA온누리교회는15일(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에서 무료 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혈액 검사, 무료 암 정기검진 등을 실시했다. ©기독교일보

초대합니다

제2회 WE BRIDGE CONFERENCE

작은교회를 위한 전도와 목양 컨퍼런스

남가주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사모님들께 힘이 되어 드리는 제2회 위브리지 컨퍼런스를 감사한인교회에서 합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집회에는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길 것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령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리며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날 짜 2023년 11월 6일(월) 저녁 7시~9시
2023년 11월 7일(화) 저녁 7시~9시

장 소 감사한인교회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기획: Oneheart Ministry 주관: 기독교일보, ING ☎ 213.739.0403 ✉ webridgeinfo@gmail.com
후원: We Bridge 후원 교회, 감사한인교회, BTS Solar, 달라스 크나무교회, CGNTV



김영길 목사(TMF 대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진리, 바른 교회를 찾는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김종규 목사, “신앙의 보석 같은 이들이 가득한 곳”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가 설립 46주년을 맞았다. 이 교회는 46년을 분열 없이 교회를 지켜온 신앙의 보석 같은 이들이 가득한 광맥 같은 곳이다. 2018년, 이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해 올해로 5년째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김종규 목사는, 교회에 깊이 배어 있는 성도들의 성숙한 영성이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앞으로 가야 할 분명한 목회적 방향성을 부여해 준다고 말한다.

그가 이곳에 오기 전, LA의 목회적 상황에 대한 소문은 자자했다. 보스턴의 고든 콘웰에서, 조지아 애틀랜타 새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며 캘리포니아의 무시무시한 영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한 목사님이 심방을 가시는 길에 집사님에게 ‘목사님, 오실 때, 저희 아이 기저귀 좀 사다 주세요’라는 전화가 왔다는 얘기, 장로님이 담임 목사 자녀의 티셔츠 브랜드를 확인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서부에서의 첫 목회, 그리고 첫 번째 담임 목회였다. 담임 목회도 처음이고, 펜데믹도 겹쳤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말씀과 기도 밖에 없었다. 안전하고 확인된 것을 선호하는 그는, 목회를 해도 도전적인 것보다는 전통을 잘 가꾸는 목회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예전의 그였다면 도전해 보지 않았을 새로운 길로 그를 이끌었다.

그가 목회를 하며 확신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교회가 잘 되길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가을이 되면, 기도원이나, 산장에 가서 다음 해의 목회를 구상하고 내년도 52주 동안의 설교를 구상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음 해의 설교 구상이 이미 끝난다.

김종규 목사는 “성도들이 성숙하다. 어르신다운 어르신이 많으시다. 보석 같은 분도 많다. 설교자로서 가장 위로 받을 때는 제가 넘볼 수 없는 믿음의 발자취를 가진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눈빛이 반짝 반짝해 질 때이다”라고 말했다.

46년의 전통을 지닌, 오렌지카운티 메인 교회라는 타이틀 말고도 이 교회에는 특수한 점이 있다. 바로 주일에도 새벽예배를 드린다는 점이다. 그가 주일 새벽 예배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양적인 부흥은 성실함의 결과”라며 “물론 개혁만 하면 되었던 70년대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한국에서 100만 부흥 운동을 경험했던, 피 끓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할 곳을 찾던 것이 저희 교회 역사이다. 그것도 물론 요인 중의 하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헌신이 아닐까. 그것을 저는 성실함이라고 표현한

다.”고 말했다.

진리,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있다. 초대교회 안의 이러한 양적 부흥이 없이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될 수도, 그들이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흥 이후가 더 중요하다. 부흥 자체 보다, 우리에게 왜 부흥이 필요한지가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많은 무리를 회개하게 했듯, 많은 이들을 회개하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선교를 향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이다. 제가 얻은 답은 첫 번째는 성실함이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부르짖는 만큼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야 하는가.’ 그것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자리만 지키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떻게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화두는 ‘예배에서 선교로’이다.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했고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한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배만 향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커뮤니티나 다음 세대, 다른 세계를 향해야 한다. 그것을 전방위적 선교라고 생각한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5년간 이 화두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 첫 번째 목표는 그의 비전이 개인의 비전이 아닌 모두의 비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그 비전을 교회 장로님들에게 나누고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의 『비저너링』(Visioneering)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며 비전의 실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전략을 장로님께 나누고 피드백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유하고 교회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꾸려 한다.”

“비전은 변화이고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스테디와 웨어링, 비전 캐스팅(vision casting, 비전을 공동체에 제시하여 공동체 내의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설득 시키는 것)의 과정이 필요하다.”



김종규 담임 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기독일보

그가 발견한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대안은, 시니어를 섬기는 사역이 아니라, 시니어가 주체가 되는 교회이다.

“자기 집안일이나 비즈니스보다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

“1998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다. 20년을 사역하고 5년을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합적이었다. 저희 교회처럼 규모가 있고 전통적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대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것은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었다.”

“그런데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담임목사가 되면 교회 모든 것들이 제 책임이다. 무한 책임의 굴레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무겁지 않다는 점이다.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위로, 진정한 정체성, ‘진정한 목사 됨’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 새로운 성도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그런 경우인데 30년을 같이 하다 보니 인생을 같이 한다. 좋은 점은 자식이 떠나도 진짜 가족이 옆에 있다는 점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 3년 전부터 차근차근 교구를 개편하여,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사귀게 하고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가 되도록 하고 있다.

◆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피터 스카지로(Peter Scarzzero) 목사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Emotionally

Healthy Leader)라는 책이다. 한인 목사님들은 성취하고 인정을 받아야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많은 분들이 능력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는 책이다.

◆ 이민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미셔널 처치를 얘기하신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민교회가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했다. 한인들의 구심점이 한인교회였다. 그것도 좋은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선교적 마음으로 설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M들과 2세대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을 것 같다. ‘나의 헌신으로 우리 지역이 바뀔 수 있고 자녀들이 더 성경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청년들은 거기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KM과 EM이 사역자들 사이에 대척점에 있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를 서포트해야 하는 것이냐’이다. EM들이 벌써 3세가 되었다. 아직까지 도와달라는 요청에,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다. 교회에 상처를 받았는데 헌신할 수 없는 것이다. KM이나 교회의 리더십들이 좀 더 무게를 옮겨서, 5년 뒤 교회 모습, 10년 뒤 교회 모습을 상상해서, 지금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면, 그들이 기꺼이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배만 드리고 있고 교회에만 머물고 있는데 EM도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열어줄 수 있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층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내 상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상처 치유의 방법이다. 주디 한 기자

가을 스페셜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AWD

NEW 2023 HYUNDAI Santa Fe Hybrid Limited AWD

0.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Months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5 SEL

NEW 2023 HYUNDAI Ioniq6 SEL AWD

\$7,5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하죠?”

위 브릿지 컨퍼런스 두번째 강의 <말씀에 능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김귀보 목사(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큰 교회는 건물, 프로그램, 각종 자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오로지 담임목회자의 설교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남가주 미자립 교회 지원을 위해 열리는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11월 6(월)일부터 8(수)까지 부에나 파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되는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의 두번째 강의 <말씀에 능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부제: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를 맡은 김귀보(달라스 큰나무교회 담임) 목사의 조언이다.

이처럼, 교회의 시설과 프로그램, 인프라, 인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목회자의 진정성과 영성이 담겨 있다면, 영혼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서 생명을 발견한다. 진리와 사랑을 발견한 영혼에게는 아무리 시설과 자원이 부족할지라도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프로그램도, 시설도, 인력도 아니다. 결국 말씀에 달려 있다.

◆ 목사님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위브릿지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조

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달라스 큰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귀보 목사입니다. 약 15명의 유학생이 있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의 성전 이전과 건축을 통해서 유학생 교회가 이민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달라스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내용과 펜데믹 이후 급변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할 주제는 설교에 관한 것입니다. 강의 제목은 “말씀에 능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부제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있어서 설교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발표한 세 가지 지표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넘버즈 209호) 개신교인은 무엇을 통해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을까?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께는 더욱 설교가 중요합니다. 큰 교회는 건물, 프로그램, 각종 자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오로지 담임목회자의 설교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설교가 어느 누가 전하는 설교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잘 선포한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자기 교회 목회자의 설교만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

해 제공되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 속에 오히려 방향하면서 생수같은 말씀을 목말라 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주 말씀이 기다려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힘을 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는 설교는 삶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성도들이 듣지 않으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파고들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번 저의 강의는 이 두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번째,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설교할 때 얼마나 큰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두번째, 딱딱하고, 지루해 보이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설교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설교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펜데믹 때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페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낸 결과였습니다.

◆ 11월에 만나뵈 목회자들을 위해서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숲이 울창하게 우거질 수 있는 이유는 작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개의 큰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가능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야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 생명을 불어 넣는 개척교회가 끊임없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기존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사약력>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CLC)> 저자. <슬로, 바이블>(두란노) 공저자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 재학. 장신대(M.Div.) 졸업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의 강의 제목 및 강사

1. 성경 중심 소그룹목회: 강사 유경재 목사(나성복부교회)
2. 말씀에 능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부제: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 강사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 담임)
3. 전도는 기쁨이다: 강사 유성국 목사(Gospel To All 전도센터에서 풀 타임 전도사역, First Congregation Church 설교 목사)
4.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 강사 유수연 사모
5. 미주 신청지 포교와 활동 현황: 애스라 김 목사
6. 예수님의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 살롬 김 박사(비전 멘토링 대표, 풀러신학대 철학박사)
7. 저녁 연합집회 : 김영길 목사(미자립교회 자비량 집회 및 멘토링 사역)

컨퍼런스의 참가 대상자는 담임 목회자 및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이며, 저녁 집회는 모든 목회자 및 성도들에게 열려있다.

김동욱 기자

→ 1면 기사 “미디어와의 전쟁, 아이 마음 지키도록 하는 것이 관건”에 이어서

이 대표는 “집 안에 규칙이 없으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규칙이 없으면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다. 저희 집은 잠자기 두 시간 전에 핸드폰을 치우고, 방에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실에서 핸드폰을 충전하게 했다. 수면을 위해서 침실에서 핸드폰을 빼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아 대표는 “아이들이 포르노를 접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들다. 둘째, 포르노는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성적인 만족도 떨어진다. 또 순간적인 충동으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음란물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서 폭력적으로 바뀌게 된다. 포르노와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음악 등 좋은 것

으로 중독을 대체해야 한다. 또 냉수 요법이 있는데, 감각적인 충동이 올 때마다 도파민을 감소시키면 행동을 억제하기 쉽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컴퓨터를 자기 방이 아닌 거실에 두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채우게 해서 분별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일곱번째, 도망가는 것이 있으며, 여덟번째, 아이들이 의지할 멘토를 찾아주어야 한다. 하루 첫 한 시간 영성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 한 시간이 하루의 영성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찬양을 틀어 놓고 말씀을 외우게 해서 유혹이 왔을 때 뿌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동부사랑, 목회 로드맵 미니스트리 세미나

한국의 젊은 담임 목회자들과 LA 젊은 담임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는다. 미래 한국교회를 책임질 젊은 담임목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인 로드맵 플러스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훈련의 일환으로 미주 선진 교회를 탐방한다. 이번 방문 기

간 동안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와 이상훈 교수(미성대총장)가 강사로 참여하는 목회 로드맵 미니스트리 세미나가 10월 23일(월) 오후 4시~10시까지 동부사랑교회 사랑채플과 사랑북카페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권승원 목사(267-461-1191)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4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교회 단신

▶웨스트힐장로교회(오명찬 목사)는 10/21일(토) 오후 7시에 본관 1층 예배실에서 가을 열린음악회를 연다.

▶토렌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는 10/21(토) 오후 6시~9시까지 본당에서 "God Did"(이사야40:10)를 주제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찬양예배를 개최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강사는 Josh Sanchez 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 목사)가 10/22일(주일) 오후 1:30에 시니어위원회 주관으로 건강세미나를 연다. 강사는 Sussy Kim(김성원), Joyce Lee 박사이며 친교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 김장연 전도사 (562-857-1224)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 목사)가 10/22(주일)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본당 앞 부스에서 독감과 코비드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문의 : 조레스리 권사(213-700-6541)

▶얼바인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는 10/28(토) 오전 8시~12시까지 드림홀에서 의료사역축제 열고 Flu shot 접종, 경동맥 초음파, 혈당&혈압 체크, 의료상담 등을 제공한다. 문의: 김기주 총무(202-763-1571)

▶노스리지 만남의 교회(이정현 목사)가 10/29(주일) 5시에 <제2회 이웃초청 만남가을음악회>를 본당에서 개최한다. 아르모니아 싱어즈, 체리티 앙상블, 카리타스 싱어즈, 황규상(피리), 이영주(소프라노), 제갈소망(피아노), Korean Shofar Drum Ministry, 소노로스, 조이여성합창단이 출연한다. 문의: 818-882-9191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는 10/31일(화) 오후 6시 30분에 할렐루야 나이트를 연다. 1부는 찬양과 퍼펙트, 설교, 2부는 Kids Academy Chef로 구성된다. 문의: 이옥희 전도사 (213-273-5534), lasarang.com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는 10/31(화) 'Twist & Turns (Jesus Changes The Game)'이라는 주제로 오후 4:30~8시 까지 Family Fall Fest를 연다. 북화술 코미디쇼, 재미있는 라이딩들과 게임, 포도 부스, 발룬 아트, 페이스 페인팅, 음식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등록 필수 https://bkc.org/

미주장신, 120만불 규모 프로그램 지원 받아

한인신학교로는 유일 릴리 재단, 지역 사회 개발, 교육 및 종교 지원 및 교회 활력 도모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이하 미주장신)가 지난 9월 30일 릴리재단으로부터 목사와 평신도 설교교육 지원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1,244,735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ATS 270 여회원 학교 가운데 한인신학교로는 유일하게 미주장신이 선정됐다.

이상명 총장은 "본교가 릴리재단으로부터 설교 지원금을 받을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으로 교육 혁명이라 불리는 변화의 시기에 릴리 재단 지원금은 본교와 신학 교육 기관 및 조직이 도전을 변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지원금을 통해, 목사님들과 지역 리더들이 더욱 설득력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학 교육 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릴리 재단의 종교 부문 부사장인 Christopher L. Coble 은 "릴리 재단은 개인과 가정의 종교적 삶을 돕고 미국 내 기독교 교회의 성장과 활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

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2022년에 설득력 있는 설교 계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주장신은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면서 목회자들을 위한 새로운 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운영할 계획 중에 있다.

릴리 재단은 인디애나폴리스를 기반으로 1937년에 설립된 제약 회사인 엘리 릴리 앤 컴퍼니(Eli Lilly & Company)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세운 사설 자선 재단이다. 그동안 지역 사회 개발, 교육 및 종교에 관해 지원해 왔으며, 미국 내 기독교회의 활력을 강화하고 목회자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힘써 왔다.

김민선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 "추수의 날 기다리는 삶의 자세 품어야"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고창현 목사)가 10월 정기 예배를 드리렸다. 지난 10월 11일(수) 오전 8시 산샘교회(윤석형 목사)에서 고창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윤 목사(한인소망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고창현 목사가 설교 했다.

고창현 목사는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야고보서 5장 7절-11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장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믿음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신앙인은 주님의 재림에 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신앙인들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며 추수의 날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참석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위하여 *



사우스베이목사회가 10월 정기모임을 11일 오전 8시 산샘교회에서 가졌다. ©사우스베이목사회 제공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하여 *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과 그 땅에 평화와 임하도록 합심으로 기도했으며 윤석형 목사(산샘교회)의 축

도로 순서가 마무리 됐다. 산샘교회는 목회자들에 식사를 대접했으며, 율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에서는 준비한 선물을 참가자들에게 전해줬다. 김민선 기자

이스라엘 땅의 흙을 노새에 실어 가져가는 나아만 장군

은혜한인교회 추계 부흥성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강사로 선 백동조 목사(목포 사랑의 교회)는 부흥회 첫째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라"(왕하 5:1-14)라는 제목으로, 아람 왕군대 장관 나아만이 경험한 놀라운 회복에 대해 전하며, 나아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 놓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남편을 봐도, 아이들을 봐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기가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역사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개국이다. 갈등 상황이 5장이 끼여 있다. 6장에는 바로 전투가 시작된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 그 병 때문에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로 온다."

그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된다며,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하나님을 만났고, 개척교회를 하던 3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목 아래 전신 마비가 오고 나서야,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을 했다고 말했다.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번 씻으라는 처방을 받는다. 이 처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적대 국가에 들어왔다. 한번도 아니고 다섯번을 씻으려면 갑옷을 벗고 속옷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그럴려면 호위병들을 물러가게 하고 혼자 남아야 한다. 이런 처방은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호위병을 물리치고, 갑옷을 벗고, 속옷을 벗고 요단 강에 씻으러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를 치단 하려 하는구나.'"

"그때 나아만이 깨달았다. '네 생명을 내 손에 올려 놓을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내 목을 치든지, 엘리사의

말대로 깨끗케 되든지.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 놓는게 진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

"나아만이 그 백동조 목사(목포 사랑의교회) 결단을 한다. 네 인생 내 손에 올려 놓을 수 있겠어?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요단 강으로 내려간다. 요단 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치유를 경험한 이후, 왕하 5:17절에 드러난 나아만의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언급했다.

"아람에 돌아 가면 국경을 넘어올 수 없으니 거기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닥에 노새 두 마리가 가져온 흙을 쌓아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려 한다. 은혜 받은 증거는 예배로 나타난다. 인생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주디 한 기자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

이너비스의 약속

- ✓ 믿을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제품입니다.
-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에서 제조합니다.
- ✓ 제3자 실험실 테스트로 라벨 내용과 제품 성분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 ✓ FDA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Produced in FDA Registered Facility

구매 방법

기독교샵

전화구매: 213-434-1170
현장구매: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이너비스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건강보조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최신 기술과 최첨단 제조 장비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제조된 우수한 제품을 통해, 인류사회에 건강과 웰빙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믿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p>1 물 없이 씹어먹는 애플 사이드 비너거</p> <p>60 츠어블 타블렛 \$13.99</p> <p>애플 사이드 식초와 유산균 및 여러 종류의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체중 감량, 해독, 콜레스테롤 저하, 소화 불량 예방, 에너지 증진,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합니다.</p>	<p>2 물 없이 씹어먹는 간 회복제</p> <p>60 캔디 타블렛 \$16.99</p> <p>간 건강에 가장 좋은 조합인 밀크슬과 강황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모링가 및 다양한 비타민들로 구성되어 간 건강, 소화력, 독소 제거, 숙취제거에 도움을 줍니다.</p>	<p>3 에너지 & 무드</p> <p>60 캡슐 \$9.00</p> <p>에너지와 건강한 기분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인 마그네슘, 비타민C, 마카, 아슈와간다, 루마리 쿠파마로 만들었으며,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p>
<p>4 목 넘김이 쉬운 비오틴 5,000mg</p> <p>120 베지터를 캡슐 \$9.99</p> <p>탈모 예방과 피부질환 개선 및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p>	<p>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p> <p>120 베지터를 캡슐 \$8.80</p> <p>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받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p>	<p>6 비타민 C500</p> <p>180 베지터를 캡슐 \$11.99</p> <p>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p>
<p>7 물 없이 씹어먹는 비타민 C 츠어블 500mg</p> <p>120 츠어블 타블렛 \$14.75</p> <p>쉽고 빠르게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B2, B6가 함께 들어있어 육체 피로와 면역력을 개선해 주며,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 좋습니다.</p>	<p>8 엠에스엠 2,000mg</p> <p>150 타블렛 \$10.99</p> <p>활력있는 생활로 돌아가세요! MSM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회복, 피부 노화 방지, 상처 치유 촉진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p>	<p>9 면역력</p> <p>120 타블렛 \$11.99</p> <p>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근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p>
<p>10 간 건강 피로 회복제</p> <p>120 베지터를 캡슐 \$19.99</p> <p>한국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함량의 살리마린(밀크씨슬)을 포함하였으며, 검증된 비타민, 마네톨로 제조하여 간 건강뿐만 아니라 피로까지 회복시켜 주는 탁월한 제품입니다.</p>	<p>11 프리미엄 혈액순환</p> <p>150 캡슐 \$19.99</p> <p>검증된 다양한 비타민, 아연, 니아신, L-아르기닌, L-시트룰린, 마늘, 인삼, 허브 등 혈액순환에 좋은 고급 원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p>	<p>12 타우린 500 플러스</p> <p>180 캡슐 \$14.99</p> <p>신경세포와 신경계를 보호하고 진정시켜 심장, 두뇌 등을 건강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C와 작용하여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 항염으로 6개월 복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p>
		<p>13 피쉬 오일</p> <p>120 소프트젤 \$13.75</p> <p>높은 품질의 피쉬 오일을 사용하였으며, 다량 함유된 오메가3는 심장과 심혈관, 눈의 광역의 중요 요소로 사용됩니다. 또한 만성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p>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은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원정성예배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복음화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ken 교내)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영성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아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를 새움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과 진리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찬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0: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까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까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하마스 대학살’ 이스라엘 생존자 증언 “극도의 공포에 시달려”



Michal Rahav Kibbutz Nirim Raid Survivor

하마스 테러 생존자인 미칼 라하브(Michal Rahav)가 지난 12일 반유대주의 투쟁 웹 세미나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공유했다. ©반유대주의투쟁(CAM) 유튜브 캡처

지난 14일 유대인 인권 단체 ‘반유대주의 투쟁(Combat Anti-Semitism Movement, CAM)’이 주최한 웹 세미나에 하마스 공격에서 생존한 이스라엘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스라엘 키부츠 주민인 미칼 라하브(Michal Rahav)는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겨냥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그날 새벽, 라하브는 키부츠 전역에서 경보음이 울렸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와 남편은 영문을 알 수 없었고, 그 사이에 집을 향해 미사일과 로켓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차원이 다른 상황임을 깨달았다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남편이 무기를 챙길 동안, 라하브는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약 2시간 후, 라하브는 총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라하브는 “몇 초 후 아랍어로 외치는 소리가 많이 들렸고 현실이 우리를 덮쳤다”며 “하마스가 키부츠에 침투했고 우리의 가장 큰 공포가 되살아났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안전실로 달려가 한 딸에게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다른 딸에게는 곤봉을 건넸다. 어린 아들에게는 헬멧을 씌운 뒤 바닥에 눕혔다. 라하브는 자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당부하며 “싸우지 않고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후 집 안에서 총격이 울려 퍼졌고, 그녀는 안전실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다행히 방 문을 연 것은 그녀의 남편이었고, 그가 집에 들어오던

테러범 한 명을 쫓아내고 말했다. 라하브는 “남편이 말이 마치자마자, 거대한 빛이 번쩍였고 안전실 전체가 화약으로 가득 찼다”면서 전기가 나가고 귀가 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녀는 하마스가 그들의 집에 로켓 추진 수류탄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어 테러범들은 안전실 문과 철창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녀에게 총을 건네며 “마지막 한 발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라하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테러범들은 다른 집들로 이동해 집집마다 방화를 일삼았고, 안전실마저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하마스는 약 8시간가량 차량에 불을 붙이고, 엔진과 가스탱크를 사격하고 떠났고, 오후 3시경 마침내 이스라엘 방위군이 도착했다. 안전실 문을 열자 라하브는 집 전체가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목격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완벽한 비유다. 우리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다르다”고 묘사했다. 그녀의 가족과 다른 생존자들은 8일 밤부터 아이라트 시에 대피해 있다. 또 다른 생존자인 갈리아 소퍼(Galia Sopher)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키부츠가 “대재앙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 따르면, 이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망자는 1200명 이상이며, 부상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섰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최대 150명의 이스라엘인이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혀갔다고 발표했다. 김유진 기자

영 성공회 학교 교사 “성소수자 수업 거부했다 해고당해”

영국 성공회 학교에서 해고된 한 기독교인 교사가 “성소수자 수업을 거부했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의하면, 현대 언어 교사인 글로디스 레거(Glawdys Leger·43)는 지난 2022년 5월 켄트주 브롬리에 있는 주교 영국 성공회 학교에서 해고됐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에 대해 ‘극단적인’ 성소수자(LGBTQ) 수업을 거부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학생들에게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거는 종교교육(RE) 수업에 통합된 7학년 수업 내용에 반대했다. 그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토론 수업 중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며, 성소수자 관행은 죄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레거 교사를 법적으로 지원 중인 기독교 법률센터(CLC)는 “수업 자료는 ‘인간이 잘못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어린이들에게 암시하는 주제와 함께 성경 체성에 대한 극단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범성애자·무성애자·트랜스젠더 및 논란이 되는 성별 등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CLC는 “그녀가 수업 내용을 양심적으로 거부했으나, 이러한 우려는 무시당했다”고 했다. 영국 아퀴나스 교회교육 신탁(Aquinas Church of England Education Trust)에 속한 이 학교 측은 레거에 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되자 교육규제

기관(TRA)에 신고했고, TRA는 10일(이하 현지시간) 관련 사건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TRA의 판단에 따라 그녀는 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청문회에 앞서 그녀는 “난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마치 범죄자이자 위험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며 “난 성소수자들, 특히 성별 혼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큰 연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한 양심에 따라, 신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르치거나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난 성소수자를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진정한 공화와 사랑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난 결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는 교사들에게 이러한 이슈를 홍보하고 가르치고 기념하도록 강요했으나 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영국 성공회 대변인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고 고려 중인 사건의 복잡한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는 모든 어린이와 성인이 신앙, 성별,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존중받는 대우를 보장하는 평등법(Equalities Act)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사람은 배경, 정체성, 능력 또는 기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복음주의 지도자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가운데,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인 조니 무어(Johnnie Moore) 목사가 유럽연합(EU)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독교지도자회의(Congress of Christian Leaders) 의장이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위원으로 활동한 무어 목사는 지난 10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1,3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을 죽인 하마스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최소한 27명 사망하고 14명 실종됐다. 실종자들은 하마스에 인질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공격에 이란이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무어 목사는 “10월 7일의 테러 공격은 ‘미국으로 치면’ 한 도시에서 최대 5만 명의 미국인이 학살되고 또 다른 1만 명에서 2만 명이 인질로 잡힌 것’에 해당된다”며 “규모도 충격적이지만 비겁한 행동은 더 잔인했다. 하마스는 마을과 집을 다니며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학살했다”고 했다. 그는 “하마스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은 ‘시오니스트 국가’에 맞서 지하드를 벌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나, 이번 공격은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 악은 하나님도, 종교도,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의로운 미래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보안 관리들이 하마스의 공격 계획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은 “우리는 이 공격의 배후에 있는 자들의 손에 키스한다”며 테러범들을 치하했다. 이에 대해 무어 목사는 “여기 있는 누구도 하마스가 이란 이슬람공화국으로부터 자금, 무기, 훈련 및 기타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오래 전부터 예정된 이 모든 사건은 이란 정권과 그

지도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지도자들은 유대인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싫어한다”면서, “땅 전체가 우리 법 아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반역자는 없을 것”이라는 하마스 사령관의 말을 인용했다. 무어는 하마스의 공격을 홀로코스트와 반복적으로 비교하며, “이번 공격은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이라고 했다. 그는 “최대한 명확히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 이란의 폭군 대표이자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대표가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다. 그것은 학살이었고, 대량 학살이었다. 그리고 이곳 EU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국제기독교유대인공동체 이사회 부회장이기도 한 무어 목사는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희생자 중 상당수가 이스라엘인이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태국, 캄보디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캐나다 및 기타 국가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다”며 “하마스는 문자 그대로 세계에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무어는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인 조셉 보렐이 발표한 성명을 비판하며 EU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렐 대표는 성명에서 하마스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다. 그는 “이 성명은 민주적인 이스라엘 국가와 가지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테러 정권, 즉 부모 앞에서 아기를 학살하고 온 가족을 산 채로 불태우는 정권 사이의 도덕적 동등성을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는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의 선례를 따라 IRGC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향후 EU 자금이 하마스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 달라. 또 이란에 대한 유엔의 탄도미사일 제한 조치를 갱신하고 제재 조치를 재개해 달라. 이는 정당한 것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가 훼손하지 않도록 팔레스타인에 대한 모든 추가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맥스 루케이도

“하마스의 공격, 종말의 신호”



17일 광화문에서 열린 이스라엘 지지 집회에 참석한 외국인들. ©크리스천투데이 DB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오크힐스교회(Oak Hills Church)를 이끌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Max Lucado) 목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부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견해를 밝혔다.

루케이도 목사는 최근 폭스뉴스에 게재된 칼럼에서 “우리는 세계적 멸망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한 사람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하마스, 북쪽으로는 헤즈볼라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인이 처음으로 난폭했다. 우리는 여전히 폭력적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폭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목격했다. ‘민족 대 민족’, ‘나라 대 나라’라는 표현은 세계 대전을 의미하는 히브리 관용어다. 세계적인 갈등은 다가오는 이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며 “끝이 없어 보이는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있다. 예수님, 이 때를 경고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때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고는 계속될 것이다. 미혹과 분열의 빈도는 더 많아지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안심하라’(마 24:6)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유했다. 첫째,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베드로후서 3:9).

마지막으로 불안해하지 말라. 혼란이 여러분을 짓누르게 하지 말라. 꼭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7일(이하 현지시간) 하마스가 유대 국가를 침공해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루케이도 목사도 이에 동참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의해 최소 199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OC제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OC제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라세(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매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대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전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안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임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몰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11:15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강준민 칼럼

좋은 책을 가까이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가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를 점점 물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습관과 성품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까이하는 것이 무엇이며, 누구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지보다 더욱 강한 것이 환경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책과 좋은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좋은 책을 가까이하는 중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 책상 위에는 좋은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제 침실 곁에도 좋은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 손을 뻗으면 좋은 책을 붙잡아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자신이 가까이

하는 곳에 씨앗을 뿌리듯이 뿌려 놓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책을 읽게 되고, 좋은 책 맛을 보게 됩니다. 좋은 책이 주는 유익과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한때는 책을 읽을 때 밀줄을 치지 않고 깨끗하게 읽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거나 감동을 받으면 접어 둡니다. 줄을 긋습니다. 나중에 줄 그은 부분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습니다. 좋은 내용은 즉시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글을 쓰는데 사용합니다.

책을 정독하는 것이 좋은지 다독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균형을 좋아합니다. 정독해야 할 책이 있고, 다독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정독은 깊이를 더해 주고, 다독은 넓이를 더해줍니다. 깊이와 넓이가 함께 가야 합니다. 깊이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한 분야에 전문가는 될 수 있습니다. 한 주제를 너무 깊이 읽다 보면 다각적인 관점이나 안목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인의 사랑》을 쓴 막스 뮐러는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만 아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정독과 함께 다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독하면 다양한 지식을 만나 다각적인

고 입체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좋은 지식이 축적되고 저장될 때 그 지식을 융합하고, 관련을 맺고,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적은 관련을 맺을 때 일어납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을 자신의 삶과 사업과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과 인간관계에 관련을 맺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본 색상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 삼원색은 빨강, 노랑, 그리고 파랑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색상을 혼합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진 다양한 지식을 혼합하고, 융합하고, 관련을 맺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연합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럼 우리가 읽은 책에서 얻게 된 두 개의 지식이 함께 만나 결혼하게 되면 또 다른 지식을 낳습니다.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 만난 지식보다 더 새롭고 더 아름답고 더 경이로운 지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이 융합되면 더욱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이해야 할 좋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책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 73:28). 좋은 책은 성경을 가까이하도록 도와주는 책

입니다. 성경 속에는 보배보다 더 진귀한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책은 기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좋은 책은 좋은 성품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지속적인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좋은 성품에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성품, 인내할 줄 아는 성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성품은 우리 삶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좋은 책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더욱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의미 있는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책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자극해 주는 책입니다. 깊이 숙고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더욱 깊은 질문을 갖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꼭 알아야 하지만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품을 개발하고, 탁월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시대적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가을은 책 읽는 계절입니다. 스마트 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을 읽으십시오. 책 중의 책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십시오.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책을 가까이하고,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김한요 칼럼

악순환을 끊을 수 없을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옛날 짝꿍과 책상을 나누어 쓰던 학창시절, 책상 중앙에 금을 그어 놓고 영역 싸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노트 끄트머리라도 선을 넘으면 "왜 넘어왔냐"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지우개 뚱, 후~ 불어 넘기면, 짝꿍 연필 금을 넘어 굴러오고, 질세라 종이 휴지 접어 던지며 실랑이를 벌였던 어린시절이 마냥 그리워집니다.

은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로켓포 5,000발을 쏘아 공격하면서 발생한 최대의 인명 피해 속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긴 역사 속에서 한이 맺힌 두 민족 간의 전쟁은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자만 수 천명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각 나라들이 이스라엘, 혹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로 책임론을 들고 나오며, 서로 보복하겠다고 전쟁을 선언하는 모습은 인간의 잔인함과 죄성의 민낯입니다. 아프간에서는 최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구호의 손길이 간절한데, 지구 곳곳에서는 서로 죽이고 로켓포를 쏘아 올리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금을 그어 놓고 대치 중인 우리 조국 한반도의 모습도 마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위기감마저 듭니다. 끊어낼 수 없는 복수의 악순환 때문에 점점 더 잔인하고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모습은 죄가 물고 가는 끝판인데, 그 나라를 향하여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을 했고, 누가 먼저 시

작했느냐 라는 질문으로는 이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책임론을 주장하면 할수록 그 끝은 보복과 학살과 파괴와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복수극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용서가 답이라고 하지만, 누가 누구를 먼저 용서하느냐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에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억울해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먼저 참고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을 향해 쏘는 복수의 총과 로켓을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들 죽었으니, 내 아들도 죽어봐라'가 아니라, '내 손자는 살리자'는 마음으로 '내 아들 죽이기'를 누군가 먼저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듯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는 이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책임론을 주장하면 할수록 그 끝은 보복과 학살과 파괴와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복수극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용서가 답이라고 하지만, 누가 누구를 먼저 용서하느냐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에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억울해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먼저 참고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을 향해 쏘는 복수의 총과 로켓을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들 죽었으니, 내 아들도 죽어봐라'가 아니라, '내 손자는 살리자'는 마음으로 '내 아들 죽이기'를 누군가 먼저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듯이.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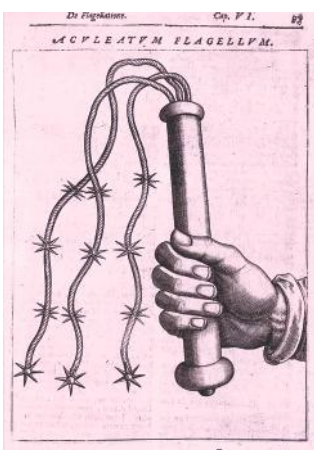
남가주 신학교 설교 페스티벌

제 8회 남가주 신학교 설교 페스티벌 우수상 <절망에서 빛으로>



오 일 혜 전도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진 사람들을 위협하고 체벌을 가할 때 쓰이는 채찍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채찍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뉴멕시코주에 산타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 곳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시에 있는 작은 뮤지엄들 중 한 곳에서 아주 인상적인 전시물을 보게 되었어요. 초창기 미대륙 정복 당시의 모습을 모형으로 재현해 놓은 것이었죠. 그다지 크지 않은 유리 상자 안에 인디언 원주민들이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고, 정복자들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채찍으로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체복을 입고 채찍을 휘두르는 정복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은 분명 강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게 각인되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그런 방식으로 전해졌던 것이 참 복음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그들이 참된 크리스천으로 변화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이사야서의 본문을 통해 두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 없이 우리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는 남유다의 웃시야왕부터 히스기야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였죠. 그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진 북쪽의 앗수르와 동쪽에서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생 바벨론, 그리고 남쪽의 강대국 애굽 사이에 끼인 외세의 위협 속에서,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도층은 탐욕과 쾌락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 또한, 부정함 이익을 취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심각한 죄악까지도 저지르고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39장까지 일관되게 경고한 것처럼,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더 이상 소망도, 기대도 없는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약 100년에서 150년 후 남유다의 심판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죠. 왕들은 정복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아들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두 눈이 뿔한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죠. 적군에 포위된 예루살렘성 백성들은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혔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극한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 이렇게 탄식하죠.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먹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며,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려졌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죽었습니다. 젖먹이는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 소망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니다.

두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인 40장 말씀부터는 확연한 어조의 전환이 일어나죠. 준엄하고 날카롭던 심판의 경고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어져 선포됩니다.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분의 팔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9절에서 선지자가 힘써 전할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되심과 그가 전하시는 복음의 강력함,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시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에서 말한, ‘강한 자’로 임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라기엔 쓰여진 의외의 단어들에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지죠. 좀 더 강력하고 투쟁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의 이 깊은 절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질문의 답이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오셨어요.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찾아가 그분의 팔을 벌려 품에 안으시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온순히 인도하시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어쩌면 너무 온유하고 소극적이어서 과연 세상에 어떤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는 세상 어느 것 보다 강력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새로운 생명의 실체를 품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복음의 본질은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1절의 표현처럼 몸이 온유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변혁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병자와, 가난한 자와, 버려진 사람들, 마치 여러분과 저 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엄청난 반전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그 증

인입니다. 7년 전 저는 제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냈습니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지 3일만의 일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 속에서, 저는 제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들어 갔죠. 그 따뜻한 손을 더 이상 잡을 수 없었구나... 내가 어떻게 했었으면 그가 살 수 있었을까... 그 사람 없이 나는 어떻게 앞으로를 살아야 하나... 나 혼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상실과 자책과 두려움과 절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 삶은 여기까지고, 세월이 저를 저 인생의 끝 어디쯤에 데려다 놓 때까지 조용히 숨어있어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절망의 동굴 한 가운데에 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아 있는 저를 안아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때 주신 시편 40편의 말씀이 제겐 복음이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저를 새롭게 살리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니다. 복음은 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제 삶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우리는 왜 인생에서 많은 굴곡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저뿐 아니라 흠어진 나그네가 되어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날마다 넘어지며 실패하며 좌절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강한 자로 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와,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 시간 저는, 우리 주님의 참 복음이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절망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나누며, ‘함께’ 삶을 변화시키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최: 기독일보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Tel (213)739-0403 chdailyreporter@gmail.com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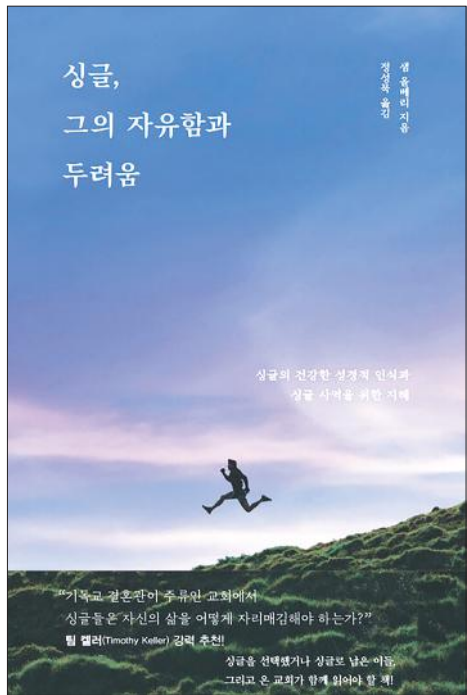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2등	3등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독신에게 진짜 하려는 말]

존 스토트는 싱글이었고, 팀 켈러는 그렇지 않았다



저자인 샘 올베리는 독신이다. 그가 2019년에 쓴 《7 Myths about Singleness》는 우리가 가진 독신에 관한 많은 '미신'들을 따라한다. 이번에 디모데 출판사를 통해 <싱글, 그의 자유함과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독특하지만 절실한 주제를 다루는 정말로 귀한 자원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부제가 말해주듯, 이 책은 '싱글의 건강한 성경적 인식과 싱글 사역을 위한 지혜'를 제공하기 충분한 책이다. 그만큼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깊이 다룬 책을 찾기 어려웠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은 더더욱 발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추천사를 남길로 어 퍼거슨 윌버트는 "사람들은 내게 독신에 관한 최고의 책이 무엇이라고 자주 묻는다. 마침내 그 책을 찾아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고 말했다. 결혼을 미루거나 재고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서 독신은 점점 늘어간다. 어느덧 결혼 적령기를 지나 싱글의 삶을 원하던 원치 않던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교회 안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대부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니, 이것이 싱글을 바라보는 성경적 인식 아닐까?

하지만 둘째 아담이자 완벽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결코 부족하거나 좋지 않다고 여기지 않는다. 물론 예수님도 죄로 부패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삶의 고달픈 일들을 당하셨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라고 인생이 주는 수고와 슬픔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독신의 삶을 사신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결혼하거나 하지 않거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독신이나 결혼 중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맞히거나 추측하라는 게 아니다. 가정을 이룬 자는 좁고 깊게 친밀감을 만들어 간다. 하지만 독신은 넓고 자유롭게 친밀감을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적으로 정결한 자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결혼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결혼 여부가 아니라 개인의 거룩함이 주요하다. 팀 켈러처럼 결혼한 자도, 존 스토트처럼 결혼하지 않은 자도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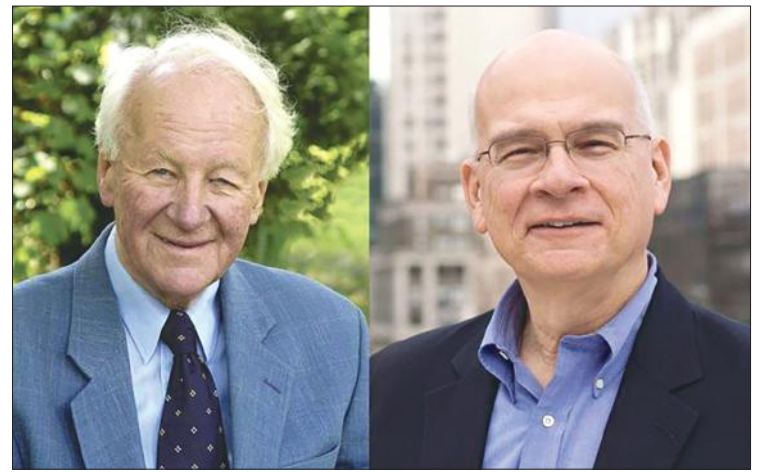
천국에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도 않는다. 성의 기능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신은 제한된 이 땅의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신의 삶이 가진 독특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이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독신의 삶

을 건강하게 영위하는 비결이다.

흥미롭게도 결혼하고 나면, 독신일 때 그렇게 듣기 싫어했던 잔소리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하게 된다: "언제 결혼할래?" 마치 결혼이 인생의 필수 과제인 것처럼, 결혼에 골인하지 않으면 뭔가 크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한다. 우리에게 다른 시각 그리고 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독신을 향해 쏟아붓는 저항하기 힘든 우리만의 생각과 요구가 정말 성경적이었는지, 올베리의 이 책을 통해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셀 무어는 이것을 '낙인'이라 부른다).

만일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불러다 독신을 탈출하라고 종용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가? 샘 올베리의 <싱글, 그의 자유함과 두려움>을 통해 독신을 바르게 인식하자. 성경은 결코 독신을 나



(왼쪽부터) 존 스토트 사제와 팀 켈러 목사. ©위키

쁜 것이나 부족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독신으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세대가 말하는 것을 본받아 독신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생각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인도해야 할 때가 됐다. 그들을 이해하고 돌보고 인도하기 위한 성경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싱글, 그의 자유함과 두려움
샘 올베리 | 정성욱 역 | 디모데 |
240쪽 | 14,000원

이 책은 독신 인구의 가파른 증가라는 사회 구조의 전환에 대해 교회가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싱글을 선택했거나 어쩌다 싱글로 남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회자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저자가 싱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싱글이 정립해야 할 자기 인식과 삶의 가치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싱글을 이해하고 함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다!

정말 그랬다. 우리는 싱글에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독신의 삶이 고달픈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독신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영위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독신은 가정을 이룬 자들보다 친밀감을 얻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독신이 성(性)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참거나 죄를 짓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래도 독신의 삶은 가정을 이룬 사람의 삶보다는 쉽고 편하지 않을까?

영국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로 알려진, 성공회 목사이자 국내 제법 많은 책이 소개된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이 높고 두려운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숙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니라.

시편 128: 1, 2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obedience to him.
PSALM 128: 1, 2

2019. 9. 1. H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

끊이지 않는 살육의 반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서방과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계, 오늘날 그치지 않는 분쟁 출발점 유대인 진출, 팔레스타인엔 재앙 팔레스타인 등 대응 방식도 처참 전쟁과 테러 주된 수단으로 선택 네 차례 전면전 도발, 모두 패배

◆이스라엘과 한국: 이스라엘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한국인들의 정서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탄 공습, 그리고 가자 지구 주변 지역의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과 납치로 인해 전쟁이 개시되었다. 이 사태가 국제적인 소규모 분쟁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해 보인다. 현재 양측 간 대규모 재래전이 격화되는 중이며, 사상자 수 또한 수천 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전 세계 여론은 크게 셋으로 갈렸다.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서방 주요국 대부분은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반대로 사우디, 이란 등 이슬람 주요국들은 하마스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그 외 해당 전쟁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나라들 대부분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각자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며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한국 정부 역시 친

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을 둘러싸고 느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우호적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세속주의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초월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신념 때문에 전쟁이나 테러를 일으키는 행태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이런 종교적 광신의 행태를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 및 무장단체가 이슬람 진영이었다. 따라서 세속주의 관점에서 종교의 가치를 바라보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일단 하마스가 악의 무리로 비쳐질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전쟁을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이 집단이 악의 무리라는 사실은 부정할 길이 없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한때 개신교 신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세계의 역사적 경계심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고, 게다가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유래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 특히 국방부가 한때 이스라엘 군을 군사력 증강의 모범으로 삼았다는 점 또한 한국인들이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다. 강렬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여섯달째 군복무를



지난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가자지구 리말 지역 내 하마스 관련 건물들이 이스라엘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 ©KRM

해 압제자가 된 유대인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우호적 정서,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정적 지지에 분명한 성격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역의 주된 도구로 쓰셨던 것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통해 오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 인류에게 동등한 복음 전파 기회가 열린 신약 정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위치를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유대인들도 그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수많은 민족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현재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보다 냉정한 국제정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맹목적으로 이스라엘과 서방 주요국의 편을 들 만한 정당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1948년 성사된 이스라엘 건국은 1900년 가까이 서방 각지를 떠돌아다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가해진 끊임없는 학대와 멸시에 대한 서방 세계의 배상의 일환이었다. 주후 70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주 기반을 상당부분 상실한 채 로마 제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적 색채는 제국 각지에서 이들이 배척받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주후 4세기 이후 유럽 전역이 점차 기독교 세계로 변해가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이들의 후예'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반복적인 학대와 멸시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 반유대주의는 서방 세계의 민중 정서를 지탱하는 하나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11-12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 반복적으로 행해진 유대인 학살, 1492년 스페인의 유대인 추방령(알람브라 칙령), 1894년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 19세기 말-20세기 초 제정 러시아 말기의 반유대주의 폭동과 학살

(포그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1930-1940년대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차별과 대량학살 등, 유대인들에 대한 서방 세계의 멸시와 폭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중심이 된 연합군 승전국들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건국하는 일을 묵인했다. 유럽 각국의 정·재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력한 유대인 자본가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었던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이루어진 일이었다.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로 인해 서방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지고 있던 마음의 빚 또한 이스라엘 건국의 주된 성사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서방 세계와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계가 오늘날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 간의 그치지 않는 소규모 분쟁과 전면전을 촉발하게 된 출발점이 된 셈이다.

주후 1-2세기경 이후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유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정치적 영향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고토를 회복한 것, 이는 팔레스타인에 살던 무슬림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까마득한 과거에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이 제국주의 열강의 힘을 빌려 강압적으로 나라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물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강제 점령한 데 대해 팔레스타인인들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대응방식 또한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이들은 이슬람 특유의 배타성과 호전성에 의거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에 전쟁을 개시했고, 이후 벌어진 네 차례의 전면전에서 모두 패배해 버리고 말았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응이 처참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대함에 있어 전쟁과 테러를 주된 수단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박욱주박사(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겸임교수)



1973년의 제4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의 전면전 승리로 막을 내렸다. ©위키

미, 친서방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본적으로는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하는 입장이지만, 날이 갈수록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중동 국가들과의 국제교역을 고려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한 전면적 지지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과의 복잡한 외교적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굳이 눈에 띄게 나서서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와는 별도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우

수행하는 전 국민 징병제, 주변 이슬람 국가에 고립된 채 고군분투하는 항전 정신, 그리고 서방과의 긴밀한 군사적 협력 하에 주변국을 압도하는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를 갖춘 이스라엘 군의 모습은 적어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모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과거 학교나 군에서 정훈교육 소재로 이스라엘 건국과 전쟁 과정이 자주 언급되곤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구 열강을 이용

담임목사 청빙

플로리다 주 크레스트뷰(FL, Crestview)에 소재하고 있는 새생명한인장로교회는 설립 17년 된 교회로 북미주개척장로교단협의회(NAPARC)에 소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노회 산하 지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1. 청빙요건

- 구령의 열정과 소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연구에 착념하시고 영적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이끄실 목회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지정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 후 목사 안수받으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로 설교와 상담이 가능한 분
- 미국에서 사역함에 경력사유가 없는 분 (시민권/영주권)
- 목회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 (담임목사)
- 기혼자로서 연령이 45세 이상 되신 분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E-mail로 만 받습니다.)

- 이력서 (본인과 가족사진 포함)
- 목사 안수 증명서, 최종 학위서
- 신앙 고백서
- 목회 계획서
- 설교 (영상 파일) 2편 및 교회 홈페이지 설교동영상 사이트 소개
- 최근 교회주보 (2회)
- 추천서 (2장)

3. 보내실 곳

suk.c.kurtz@gmail.com 청빙위원회서기 서숙자 권사(850)699-5448

4. 서류 제출 마감일

2023년 10월 31일(도착)

5. 기타

- *모든 서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 드리며,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청빙하는 교역자의 사례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이전에 알려드립니다.

새생명한인장로교회

New Life Korean Church | 새생명한인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최진목 목사 / 담임목사청빙위원장 신철 정로 / 서기 서숙자 권사 | 5502 Old Bethel Rd, Crestvie, FL 302536

담임 목사 청빙

워싱턴 벨뷰에 소재한 벨뷰 필그림 장로 교회(PC USA)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학력-정규신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하신 분
- 경력-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년 이상 시무하신 분(이민 목회)
- 소속 PCUSA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한국어 영어) 언어가 가능하신 분
- 미국 영주권자 이상

제출서류

- 자필 이력서
-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각 1통
- 추천서 2통(목사, 장로 추천서 각 1통,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 최근 6개월 설교 2회분(동영상 파일, YouTube link)
- 신앙 고백서 1부
- 목회 비전서 1부
- 자기 소개서 (성장 과정 및 활동 내역 중심)

제출 마감일시 : 2024년 1월 31일

제출처우편 : Korean Pilgrim Presbyterian Church

6016 SE 120th Ave, Bellevue, WA 98006 e-mail: kppc.friendship@gmail.com

기타

- 제출 서류는 보안에 유의하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는 e-mail로 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한인 필그림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제 2 회 WE BRIDGE CONFERENCE

작은교회를 위한 전도와 목양 컨퍼런스

남가주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체험했던 많은 은혜들과 사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We Bridge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귀한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컨퍼런스 신청은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CAN ME!

MAIN SPEAKER



저녁 연합집회 설교
김영길 목사(TMF 대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개회 예배
이건창 목사
발렌시아샘물교회 담임



폐회 예배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SEMINAR SPEAKERS & PRAISE



"성경 중심 소그룹목회"
유경재 목사
나성북부교회 담임
충신 신학대학원 M.DIV.



"말씀에 능력을 붙여주는 내러티브 설교"
김귀보 목사
달라스 크나무교회 담임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전도는 기쁨이다"
유성국 목사
GOSPEL TO ALL 전도센터
부에나파크 뉴라이프 선교교회(96-16)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
유수연 사모
CA ABC 통일교육교육위원장
GATEWAY ACADEMY 대표



"미주 신천지 포교와 활동현황"
에스라김 목사
생명의 바람교회의 담임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



"예수님의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
살림김 박사
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
플러신학대학원 Ph.D



집회 예배 찬양
원하트 미니스트리

날짜 : 2023년 11월 6일(월)~8일(수)

장소 : 감사한인교회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등록마감일: 2023년 10월 28일(토)까지 선착순 마감(등록비 없음)

☎ 213.739.0403 ✉ webridgeinfo@gmail.com

기획 : Oneheart Ministry 주관 : 기독교일보, ING

후원 : We Bridge 후원 교회, 감사한인교회, BTS Solar, 달라스 크나무교회, CGNTV

